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창작된 명가사들의 사상예술적특성

우 광 영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김정은동지는 우리 당의 혁명사상과 리론에 정통하고있을뿐아니라 정치와 군사, 경제와 문학예술, 과학과 기술 그리고 력사와 건축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식견을 가지고있습니다.》(《김정일선집》 증보판 제25권 420페이지)

비범한 사상리론활동과 거창한 혁명실천으로 주체혁명의 새시대를 열어나가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탁월한 령도는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혁명적진군의 나팔수, 힘있는 추동력인 문학예술부문에도 뜨겁게 깃들어있다.

새로운 주체100년대에 들어서면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의 가사문학에서는 인류문예사에 특기할 명가사의 귀중한 본보기가 마련되였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높이 백전백승 조선로동당의 두리에 군대와 인민이 천겹만겹으로 굳게 뭉치여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일대 전성기를 펼쳐나가고있는 만리마시대현실을 민감하게 반영한 명가사들이 훌륭히 창작될수 있는것은 전적으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현명한 령도의 결과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무엇보다먼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기를 높이 날리며 주체의 불변궤도를 따라 힘차게 전진하는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수령영생주체송가들이 사상예술적으로 완벽하게 창작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은 우리 조국과 인민의 마음속에 태양으로 영생하신다는 사상을 깊이있게 반영한 문학작품들을 훌륭히 창작하도록 창작가들을 손잡아 이끌어주시였다.

수령영생위업의 개척과 함께 주체문학에는 수령영생문학이라는 새로운 주체령역이 형성되었으며 특히 수령영생송가가 자기의 고유한 품격과 특성을 갖추며 수령영생문학건설에서 선도적역할을 수행하였다.

새로운 주체100년대에 들어서면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세심한 지도밑에 가사 《수령님과 장군님은 함께 계시네》, 《장군님은 태양으로 영생하신다》와 같은 수령영생주체의 송가들이 창작되였다.

수령영생송가는 가사 《수령님과 장군님은 함께 계시네》의 창작으로 새로운 높은 경지에 오르게 되였다.

가사 《수령님과 장군님은 함께 계시네》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주체의 태양으로 영원히 높이 모시고 위대한 태양의 축복속에 찬란한 미래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크나큰 민족적공지와 자부심을 훌륭히 노래한 명가사이다.

1절의 첫행부터 거대한 힘과 무게를 싣고 승엄하게 울리는 가사는 비록 길지 않지만 그

사상정서적내용의 철학적깊이는 매우 심오하다.

가사에는 주체혁명위업의 개척으로부터 그 빛나는 계승완성에 이르기까지의 비상히 폭넓고 거창한 세계가 담겨져있다.

삼천리금수강산 내 나라의 아침은 만경봉과 정일봉의 해돋이로 밝아온다는 1절과 승리와 영광의 그 해빛을 받으며 위대한 조선의 후손들이 자란다는 2절의 내용에는 참으로 심오한 철학적의미가 담겨져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은 어제도 오늘도 래일도 사회주의조선의 영원한 영상이고 힘이시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태양의 모습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가슴속에 조선민족의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이 끓어오르게 하고 지구도 들어올릴 거대한 힘이 융솟음치게 한다.

가사는 이러한 사상감정을 우리 인민이 일상생활에서 늘 쓰는 평범하고 통속적인 시어에 담아 내 나라의 아침이 어떻게 시작되며 주체조선의 후손들이 무엇을 자양분으로 하여 자라는가에 예술적해답을 주고있다.

가사 《수령님과 장군님은 함께 계시네》가 수령영생에 관한 사상을 빛나게 구현할수 있는것은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에 대한 력사적총화나 간절한 그리움의 감정만이 아니라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민족의 영원한 태양으로 변함없이 높이 모시고 살며 투쟁해나가는 우리 시대의 현실에 형상의 초점을 박았기때문이다. 다시말하여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생전의 모습 그대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래일을 축복해주신다는 절대적인 확신에 예술적형상의 뿌리를 두었기때문이다.

지나온 력사만이 아니라 오늘과 래일, 단순히 수령이 이룩한 불멸의 업적에 대한 칭송만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의 후손만대에 미치는 거대한 영향력을 노래한 여기에 이 가사가 수령영생송가의 독창적인 세계를 창조할수 있는 비결이 있는것이다.

참으로 가사 《수령님과 장군님은 함께 계시네》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영생과 인민의 운명, 조국의 천만년미래를 하나의 영원한 피줄기로 결합시켜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거룩한 충정의 세계가 낳은 태양송가이다.

수령영생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시여 태양의 영원한 축복속에 천만년 길이 살고싶어하는 이 나라 인민들의 절절한 념원을 풀어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리상과 념원이 빛나게 실현되는 이 땅우에 《수령님과 장군님은 함께 계시네》라는 수령영생송가의 메아리까지 울려퍼지도록 하여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영상을 《우리의 태양》이라는 하나의 의미로 결합시키고 조국과 민족의 운명과 련결시켜 훌륭히 시화한것은 가요 《수령님과 장군님은 함께 계시네》의 독창적인 발견이며 대단한 실천이다.

가사 《장군님은 태양으로 영생하신다》도 수령영생에 관한 사상을 사상에술적으로 빛나게 구현한 시대의 명작이다.

가사에는 위대한 장군님은 조국과 인민앞에 쌓으신 영구불멸할 업적으로 하여 인민의 심장속에 태양의 모습으로 영생하신다는 철의 진리를 형상적으로 확증해주고있다.

가사의 1절에서는 이 강산을 밝히는 해빛처럼 온 누리에 찬란한 미소를 뿌리시는 자애로운 인민의 어버이이신 위대한 장군님은 인민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신 인민사랑

의 태양으로 영생하신다고 격조높이 노래하고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한평생은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고 인민들과 생사고락을 함께 하시며 그들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신 한평생이기에 우리 인민은 장군님을 그 어디에도 비길수 없는 따사로움과 광휘로움을 다 지니신 인류의 태양으로 높이 칭송하고있는것이다.

가사의 2절에서는 총대로 조국과 민족의 운명, 정의와 진리를 굳건히 수호하신 위대한 장군님은 조국과 민족, 인류앞에 쌓으신 불멸의 업적으로 하여 영생하신다는 력사의 진리를 천명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다음으로 주체혁명위업수행의 새로운 력사적전환기의 시대정신을 자기의 기본사상정서로 하여 그 내용과 형식, 수법을 새롭게 개척한 명가사들이 훌륭히 창작되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창작된 명가사들은 우선 주체혁명위업수행의 새로운 력사적전환기의 시대정신을 자기의 기본사상정서로 민감하게 반영하고있다.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은 오늘 새로운 력사적전환기, 도약기를 맞이하였다.

시대정신을 민감하게 반영하는것은 우리의 문학예술의 본성으로부터 제기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제9차 전국예술인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신 력사적인 서한을 비롯하여 문학예술부문에 주신 여러 말씀들에서 우리의 문학예술은 당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군인들과 인민들을 당의 사상과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 당정책화된 예술로 되어야 하며 창작가, 예술인들은 군인들과 인민들에게 우리 당의 사상과 정책, 의도를 생동한 예술적형상을 통하여 감정정서적으로 파악시키고 깊이 심어주어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문학예술의 참다운 생명력은 온 사회를 혁명적열정과 기백으로 끓게 하고 사람들을 투쟁과 위훈으로 힘있게 불려일으키는데서 나타나야 한다.

우리의 문학예술은 승리에서 더 큰 승리를 이룩하며 혁명의 전성기를 대번영기로 이어나가는 만리마시대현실을 민감하게 반영하여 천만군민을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으로 힘있게 불려일으키는 전투적인 문학예술로 되어야 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주체102(2013)년 한해에만도 불면불휴의 로고를 기울이시여 주체문학사에 특기할 명가사의 본보기들을 마련해주시였다.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2013년 3월전원회의정신을 반영한 가사 《나가자 조선아 병진앞으로》가 창작되어 우리 당의 새로운 병진로선의 정당성과 생활력, 당중앙의 부름따라 산악같이 일떠선 주체조선의 강용한 기상을 힘있게 노래하였고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60돐을 맞으면서 가사 《7.27행진곡》, 《전승의 축포여 말하라》, 《위대한 년대의 승리자들에게 경의를 드린다》, 《위대한 전승의 명절》이 창작되어 7월의 경축광장을 빛나게 장식하였으며 공화국창건 65돐을 맞으면서 《조국찬가》가 사상예술적으로 훌륭히 완성된데 이어 뜻깊은 당창건기념일을 맞으며 《당기여 영원히 그대와 함께》의 노래가 맑고 푸른 10월의 하늘가에 울려퍼졌다.

뿐만아니라 그해 12월에는 가사 《우리는 당신밖에 모른다》, 《혁명무력은 원수님령도만 받든다》, 《그이 없인 못살아》가 창작되어 우리 당과 혁명의 명맥을 백두의 혈통으로 영원히 이어나가며 주체혁명위업, 사회주의위업을 오직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령도따라

기어이 완성하고야말 천만군민의 절대불변의 신념과 의지를 힘있게 과시하고 당과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을 천백배로 강화하는데 이바지하였다.

우리 군대와 인민 누구나 가슴속깊이 소중히 간직하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따라 떨쳐온 승리와 영광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따라 찬란히 펼쳐질 희망찬 미래에 대한 확신과 랑만에 넘쳐 즐겨부르는 이 노래들이 다 그러하지만 위대한 **김정은**시대의 명곡, 제2의 애국가로 태어난 《조국찬가》에도 그 제목으로부터 가사의 매 어휘에 이르기까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세심한 보살피심이 깃들어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내려보내주신 《조국찬가》의 가사는 결코 길지 않다.

그렇지만 가사가 담고있는 내용과 폭이 너무도 거대하여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어떤 엄청난 크기와 무게를 가진 하나의 행성과도 같은것이라고밖에는 달리 말할수 없다.

그러나 가사의 표현들은 작고 소박하게, 솟듯처럼 부드러운 친화력을 가지고 순간에 천만사람의 가슴속에 깊이 스며들었다.

출근빠스를 기다리는 사람들도, 기대를 돌리는 선반공도, 엄마의 손목을 잡고 유치원에 가는 어린이도, 휴식의 한때를 보내는 로인들도 《사랑하는 어머니가 첫걸음마 떼여준 정든 고향집뜨락 조국이여라》라고 이 노래를 부르고있다.

심오한 그 내용을 가슴에 새겨보면 불후의 고전적명작 《조선의 노래》와도 같은 노래, 참신한 그 형식을 눈여겨 살펴보면 불후의 고전적명작 《사향가》같기도 한 노래, 조국해방의 환희와 건국열의로 끓어번지던 그때 하늘땅을 진감하던 《애국가》가년대와 년대를 이어, 세기와 세기를 넘어 보다 장중하고 웅건한 메아리로 또다시 울리는것만 같다.

조국이라는 거대한 의미를 것처럼 소박한 인민대중의 생활적인 어휘로 노래했다는 바로 여기에 《조국찬가》가 순간에 천만의 심장을 틀어잡고 온 나라를 **김정일**애국주의로 끓어번지게 한 비결이 있다.

가사의 구절구절, 표현 하나하나에 새겨진 뜻을 음미해볼수록 창작가들이 처음에 지어냈던 크고 요란하면서도 추상적이고 막연한 표현이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생동한 화폭들을 소박하면서도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이 흔히 쓰는 어휘들로 마치 옆사람에게 다정하게 이야기하듯이 엮여진 가사는 인민들의 심장을 울려주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노래 《조국찬가》의 가사에 인민의 생활, 인민의 어휘를 그대로 담아 조국에 대한 사랑의 철학을 천명하심으로써 대중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넓고 구태의연한 사고방식과 보신주의, 형식주의, 패배주의 등 경직된 사상관점에 물젖어있던 창작가들이 정신을 번쩍 차리고 분발하도록 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령도의 손길은 새로운 주체100년대에 들어와 창작된 명가사들인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인생의 영광》, 《7.27행진곡》, 《내 심장의 목소리》, 《청춘송가》 등에도 뜨겁게 어리여있다.

가요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100돐경축 열병식에서 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연설사상을 반영하여 창작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가사에는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에서 자주적인 삶을 누리는 우리 인민들의 커다란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 경제강국으로서의 면모까지 완전히 갖춘

대국을 건설하려는 우리의 투쟁목표가 담겨져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가요 《인생의 영광》이 창작되었을 때에는 가사도 좋고 곡도 정말 좋다고, 노래에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장군님과 함께 걸어온 길, 우리 당을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가는 길은 기쁨도 영광, 시련도 영광이라는 숭고한 사상감정이 담겨져있다고 말씀하시였다.

《7.27행진곡》이 창작되었을 때에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가사에서 《승리 위해 싸운 용사들은 우리 부모들이다/동무여 경례를 경례를 경례를 세대를 이어서 드리자》라는 표현은 전세대들의 뒤를 이어 앞으로는 전승의 행진을 계속해나갈 새 세대들의 결의를 잘 반영하였다고, 《수령님의 명령 위훈으로 빛낸 훈장을 보라》라는 구절에서 수령님의 명령을 결사관철한 로병들의 위훈이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하는것과 바로 전승열병대오에 나선 로병들이 단 훈장과 메달들이 수령님의 명령을 결사관철하는 길에서 세운 그들의 위훈을 보여준다는것을 시적으로 잘 표현하였다고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로란봉악단에서 창조한 가요 《내 심장의 목소리》를 들어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가사가 아주 좋다고, 3절 마감부분을 《어머니 어머니 위대한 어머니 영원히 안기립니다》로 고쳐놓으니 친근감이 나면서도 당의 품이야말로 우리모두가 영원히 안겨살 진정한 어머니품이라는 사상감정이 더 잘 안겨온다고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청년사랑, 청년중시사상을 빛나게 계승해나가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사회주의강국건설과 원수들과의 포성없는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는 것처럼 분망하신 속에서도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9차대회를 영광의 대회합으로 빛내이며 청년들에게 하나라도 더 뜻깊은 선물을 안겨주시려고 가사 《청춘송가》의 완성을 위해 몇밤을 새우시며 깊은 사색과 로고를 바쳐가시였다.

조선청년의 기상을 힘있게 과시한 대축전장에서 태어나 슬기롭고 영웅한 이 나라 청년들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하며 천지를 진감하는 《청춘송가》에 담겨진 사상에술적의미는 참으로 심오한것이다.

일반적으로 송가라고 하면 거창한 역사적대상과 사변을 웅장하고 장엄한 서정적화폭에 담아 노래하는 문학이다. 어떤 인물이나 역사적의의를 가지는 사건, 조국이나 인민의 위업에 대한 흠모와 찬양, 칭송의 감정을 표현한다는데 송가의 특징이 있다.

백두산절세위인들을 높이 모신 우리 나라에서는 청년문제가 가장 빛나게, 완전무결하게 해결되었으며 오늘은 조선청년들을 소리높이 찬양하는 송가를 탄생시켰다.

위대한 우리 당을 따르는 길에는 오직 승리와 영광만이 있으며 그 길에서 조선청년의 이름은 온 누리에 찬란히 빛발친다는것을 격조높이 노래한데 가사의 높은 사상정서적감각력이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창작된 명가사들은 또한 가사문학분야에 오래동안 남아있던 도식과 틀을 대담하게 마스고 주체혁명위업수행의 새로운 역사적전환기의 요구에 맞게 가사구성과 형식, 형상수법도 새롭게 개척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령도따라 주체혁명위업, 사회주의위업을 끝까지 완성이 위한 투쟁이 벌어지고있는 오늘의 시대적현실은 문학작품의 새로운 형식을 요구하고 있다.

새 세기 우리 군대와 인민의 사상미학적요구를 깊이 통찰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문학작품창작에서 대담하게 새로운 형식을 개척하고 내용과 형상수법도 새롭게 개척하도록 창작가들을 이끌어주시었다.

문학작품창작은 본래의 의미에서 비반복적이고 독창적인 것이며 독창성은 창작의 본성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정력적인 지도밑에 창작된 가사 《조국찬가》와 《당기여 영원히 그대와 함께》, 《청춘송가》는 높은 사상정서적감화력을 가질뿐아니라 가사창작에 오래 동안 남아있던 도식과 틀을 마스고 심오한 사상적내용을 표현한 시어구사와 절구성, 운률조성 등 형식에서 완전히 새로운 경지를 개척한 명가사의 본보기이다.

위대한 **김정은**시대의 애국가인 《조국찬가》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우리 인민에게 안겨주신 시대의 명작이다.

명작에는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에 대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열렬한 사랑의 감정이 진실하게 반영되어있으며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존함으로 빛나는 우리 조국을 온 세상에 더 높이 떨치며 끝없이 빛내여가시려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숭고한 지향과 의지가 깊이있게 구현되어있다.

애국심은 어린시절 사랑하는 어머니가 첫걸음마 떼여준 정든 고향집뜨락에서부터 싹트고 자라나게 되며 조국은 다름아닌 귀중한 생을 주고 행복하고 보람찬 인생길로 이끌어주는 참다운 삶의 품, 떨어져서는 순간도 살수 없고 목숨바쳐 지키고 가꾸어야 할 한없이 소중한 품이라는 심오한 사상을 정서적으로 밝힌 1절, 온 나라 강산이 인민을 위한 선경으로 전변된 눈부신 현실을 황홀하게 바라보면서 느끼는 환희와 긍지, 조국산천을 인민의 행복이 넘쳐나는 락원으로, 그 어떤 원쑤도 감히 범접 못하는 막강한 국력을 가진 존엄높은 불패의 사회주의강국으로 전변시켜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칭송한 2절과 3절,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당과 혁명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시여 약동하는 모습과 청춘의 기상으로 비약하는 위대한 조국에 대한 긍지가 진실하게 반영된 4절,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 우리 조국을 인민의 모든 리상이 활짝 꽃피나는 행복의 락원으로 꾸리려는 억척같은 신념과 지향이 맥박치고있는 5절,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우리 혁명의 영원한 기치로 높이 들고 인민의 모든 리상과 념원,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구상하시고 의도하신 모든것을 최상의 높이에서 가장 훌륭하게 실현하시려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확고한 결심과 의지가 깊이있게 구현되어있는 종령으로 구성된 가사는 심오한 사상과 인민적이며 민족적인 형식이 완벽하게 결합되어있다.

인민들에게 친근하고 알기 쉬운 시어와 표현에 깊은 생활철학을 담고있는 가사는 시대정신을 투철하게 반영한 작품이지만 거기에는 그 어떤 정치적표현이나 시대어, 요란한 수식사도 없다. 하지만 가사의 평범하고 생활적인 시어와 표현속에는 비상히 폭넓고 깊은 의미가 담겨져있다.

가사 2절의 《금은보화 가득한 전설의 나라》라는 구절에서 《전설의 나라》, 3절에서 우리 나라의 국조와 국화를 밝힌 《구름우엔 참매 날고 목란꽃핀 이 강산》, 목란꽃과 련관시킨 《아름다운 조선의 모습》, 4절에서 참매와 련관시킨 《억센 기상 하늘에 닿은 이 조선》, 5절의 첫 구절 《창공에는 우리 국기 무궁토록 나뭇기고》에서 소박하게 노래된 《우리 국기》, 한평생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념원과 인민

의 리상이 모두 이루어진다는 의미가 담겨진 《이 땅에선 모든 꿈 이루어지리》 등 가사의 모든 절, 모든 시구가 다 그렇게 씌여졌다.

명작의 이러한 형상은 지금까지 나온 가사들과는 뚜렷이 구별되며 통속성과 철학성의 결합에서 새로운 높은 경지를 개척하였다.

가사의 비범한 시형상세계는 인민이 즐겨부르는 명곡, 인민들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주는 명가사를 인민들에게 안겨주려는 강렬한 지향, 조국과 민족에 대한 열화같은 사랑에 기초해서만 이루어질수 있는것이다.

명작은 시어뿐아니라 절구성과 시행조직, 시구와 운률 등 가사의 형식전반에서 기존의 도식과는 전혀 다른 참신한 면모를 보여주고있다.

이러한 독특한 구성형식은 제약된 틀에서 벗어나 사상과 정서를 폭이 넓고 시원하게 전개하고 웅건하고 품위있는 시적형상을 창조하는데 이바지하고있다.

참으로 《조국찬가》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심원한 사상과 특출한 예지가 비친 명작이며 우리 조국, 우리 인민과 더불어 영원토록 전해지고 불리워질 또 하나의 애국가이다.

위대한 당을 따라 천만군민이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폭풍노도쳐 나아가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태어나 비상한 감화력을 발휘하고있는 가사 《당기여 영원히 그대와 함께》도 새로운 주체100년대 명가사의 귀중한 본보기, 걸작이다.

승리와 영광으로 빛나는 주체혁명의 년대들마다에 힘차게 휘날려온 조선로동당기발, 성스러운 그 기폭속에는 세기와 세기를 이어 불타는 충정과 애국심을 안고 살며 투쟁해온 우리 군대와 인민의 녀과 숨결이 그대로 비껴있다.

붉은 기폭속에 숨배인 천만심장의 뜨거운 열기와 그 펄럭임속에 어려있는 끝없는 격정의 샘이 하나로 합쳐져 태어난 가사 《당기여 영원히 그대와 함께》는 우리 군대와 인민이 삶과 투쟁의 좌우명으로 새겨갈 충정의 노래이다.

가사는 우리 당을 따라 이 세상 끝까지 역세계 걸어갈 천만군민의 신념과 의지가 굽이치는 시대의 열정과 정신에 정서적바탕을 두고있다.

《그대 정답고 눈부신 자태 우리 맘속에 어머니로 새겼네》로 시작된 가사는 우리 당이 이 나라 모든 사람들의 소중한 꿈을 지켜주고 꽃피워주는 어머니라는 심오한 뜻을 담고있다.

언제나 마음속에 간직하고 우러러 바라보던 당기의 정답고 눈부신 자태가 위대하고 황홀한 어머니의 모습으로 가장 친근하게 안겨오는 1절에서는 당기를 《우리의 희망 아름다운 우리의 미래》라고 노래하면서 《그대 준 생을 그 품에 바쳐 그대만을 사랑하리라》는 신념을 절절하게 토로한다.

1절에서 터뜨린 서정의 물결은 2절에서 당이 준 생명 다할 때까지 변함없이 당의 뜻에 참되리라는 불같은 맹세의 격랑으로 용용히 굽이친다.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인 우리 당의 혁명적성격이 타오르는 불로, 줄기찬 열정으로 안겨오며 그 힘과 의지로 거연히 일떠설 조국의 래일속에 인민의 고운 꿈과 만발하는 행복이 방불히 그려진다.

가사에 굽이치는 그 서정의 힘은 당기를 높이 휘날리며 언제나 승리떨쳐온 지나온 추억이 낳는 필승의 신념과 한생을 통해 검증된 진리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주는것이다.

당기에 대한 숭고한 사랑의 감정은 3절에서 억척같은 믿음으로 승화되며 승리에 대한

확신으로 이어진다. 《세월 끝까지 눈비바람 막아줄 그대》를 믿기에 혁명의 준엄한 시련과 폭풍우를 강용히 헤쳐가고 그 믿음으로 일심단결의 무궁무진한 힘을 떨치며 영원불멸할 당기와 함께 모든 영광을 맞이하리라고 노래한 3절의 가사형상은 천만군민의 심장의 맹세를 그대로 터치고있다.

가사의 특출한 감화력과 영원한 생명력은 시대적으로 의의있는 사상적내용을 얼마나 세련된 시적형상속에 담아냈는가 하는데 있다.

가사는 어떤 현란한 수식사나 미사려구도 없이 구수하면서도 생활적인 어휘로 소박하고 진실한 형상을 창조함으로써 풍만한 서정의 힘으로 우리 당기발에 깃든 심오한 의미를 폭넓게 밝혀주고있다.

특히 매 절들을 《당기여》라는 부름으로 끝맺는 가사의 형상은 사람들에게 깊은 여운을 안겨주고있다.

가사는 조선로동당을 어머니로 따르며 그 품에 모든 운명을 맡기고사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사상감정을 《당기여》라는 친근한 부름으로 정깊게 형상함으로써 형언할수 없는 친화력으로 사람들의 심금을 뜨겁게 울리고있다.

위대한 당기의 펄럭임소리를 내려퍼는 조국의 노래로 새기며 나아가는 인민은 모든 영광을 맞이한다는것을 밝힌 시대의 로동당찬가 《당기여 영원히 그대와 함께》는 《조국찬가》와 더불어 주체적인 명가사의 본보기로 된다.

세상에 둘도 없는 위대한 청년강국의 기상을 노래한 가사 《청춘송가》의 높은 사상성도 새롭고 특색있는 예술적형상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청춘의 슬기와 용맹, 긍지와 자부심을 반영한 노래들은 지난 시기에도 수많은 창작되었다.

그러나 가사 《청춘송가》는 서정구조와 형상수법, 시어구사와 운률조성에서 이전의 청년주제가요들에서 볼수 없는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였다.

가사는 지난 기간 가사창작에서 거의나 도식화된 3절구성이 아니라 불패의 우리 당을 닮아 희망차고 열정의 우리 당을 닮아 피끓이며 강철의 우리 당을 닮아 용맹하고 위대한 우리 당을 따라 빛발치는 청춘의 끝없는 긍지와 자부심을 4개의 절에 담고있다.

그리고 1절에서는 과장법으로 된 시행의 대구로, 2절에서는 열렬한 사랑과 몸서리치는 증오라는 감정을 대조법으로, 3절과 4절에서는 매 1, 2행에서 대구법의 능숙한 활용으로, 매 절의 4행에서는 수사학적부름과 어순전도법으로 그 형상성을 비상히 높이고있다.

가사는 《뻗치다, 구르다, 떠메다, 헤쳐가다, 뛰어들다, 빛발치다》와 같은 기백있고 씩씩한 시어들을 적극 리용하면서 3·5조를 위주로 3·6조, 4·5조, 4·4조를 적절히 배합하여 특색있는 운률을 조성하고있다.

이처럼 《청춘송가》는 인류가 알지 못하는 청년중시의 역사를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크나큰 품에 운명도 미래도 다 맡긴 당의 척후대, 익측부대인 우리의 500만 청년대군이 대합창으로 부르는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진군가, 조국통일대전의 승전가이다.

참으로 주체혁명위업수행의 새로운 역사적분수령에서 명가사창작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불멸의 업적은 주체문학사와 더불어 찬연히 빛을 뿌리고있다.

모든 창작가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더욱 발전풍부화시켜나가는 **김일성-김정일**주의문예사상과 이론을 깊이 체득하고 실천에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에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힘있게 고무추동하는 명가사들을 더 많이 창작하여야 할것이다.

실마리어 영생문학, 명가사